

『The Catcher in the Rye』의

한·일 번역 비교 고찰

- 주인공 홀든 콜필드(Holden Caulfield)의 어휘·말투를 중심으로-

오경순*

ksohlee@empal.com

차례

1. 서론
2. 본론
 - 2.1 고찰 자료 선정
 - 2.2 홀든 콜필드(Holden Caulfield)의 어휘·말투의 의미 및 그 효과
 - 2.3 홀든 콜필드의 어휘·말투의 한·일 번역 비교
3. 결론

요지

本稿はサリンジャーの小説『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の主人公、ホールデンの特有な語彙と言葉づかいが作品に与える意味及びその効果について探り、また、韓国語訳と日本語訳を比較することで、韓・日翻訳の共通点と相違点、翻訳の多義性及び翻訳の限界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小説『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の翻訳において一番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部分は、主人公である十六歳の少年ホールデンが頻繁に駆使する卑語及び習慣的に固まったホールデン特有の語彙と言葉づかい、そして自分の考えを長く続けて敘述する主人公の内的告白による言葉のニュアンスを、どうすれば正確に伝達できるかと言う翻訳の正確性とニュアンスの伝達の適切性にある。すなわち、この作品は内容や主題伝達も重要だが、それに劣らず、その内容や主題を伝達する方法や形式に重さをおいて翻訳しなければならない作品なのである。

本稿では、韓国語訳本三種類と、日本語訳本二種類を考察対象として選択し、比較した結果、翻訳者の解釈と愛情によって個人差が現われ、同様に翻訳表現が変わ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翻訳に王道はない。翻訳はだれでもできる。しかし、誰もが、完璧な翻訳をするというのは不可能であろう。しかし、本稿で考察したように、少なくとも翻訳に臨む翻訳者の努力と愛情程度によって、翻訳の質、すなわち、翻訳の正確性及びニュアンスの伝達の適切性がより良くなるという事実だけは明らかであると思われる。

키워드 : 홀든 특유의 어휘와 말투(言葉づかい), 번역의 다의성(多義性), 번역의 정확성, 어감전달의 적절성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1. 서론

번역의 정의는 번역자의 수만큼 많다.

번역을 이야기할 때 ‘저울질’이라는 말이 흔히 인용된다. 프랑스 작가이자 번역가인 발레리 라르보(Valery Larbaud)는 번역은 “말의 무게를 다는 것이다” 즉 “저울의 한쪽에다 저자의 정신이 녹아든 말을, 다른 쪽에는 번역어를 올려놓고 균형을 이룰 때까지 맞춰가는 작업”이라 정의했다.¹⁾ 번역은 반역(半訳) 밖에 안 된다든지, 필연적으로 반역(反逆)일 수밖에 없다든지 하는 말이 있지만, 이런 말들은 모두 번역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반어적인 표현이다.

모든 번역은 그것이 짙막한 실용문의 번역이 아니라 문학작품의 번역인 경우에는 출발언어(source language)의 충실성과 도착언어(target language)로 옮겨진 미적 가치란 두 가지 상반된 기준의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번역은 단순한 ‘옮기기’가 아닌 출발언어권의 독자의 반응과 언어효과와 감동이 그대로 도착언어권의 독자의 반응과 언어효과와 감동으로 전달되어야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The Catcher in the Rye*』는 샐린저(J. D. Salinger)²⁾를 단번에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준 작품으로 거침없는 언어와 사회성 짙은 소재로 출간되자마자 전후 세대의 젊은 층을 사로잡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재에도 매년 30만부 정도가 팔리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 작가 윌리엄 포크너가 ‘현대문학의 최고봉’ 이라고 극찬한 작품이다.³⁾ 또한 이 작품은 존 레논의 암살범 마크 체프먼(Mark Chapman)이 탐독한 소설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암살 순간 그의 손에 『*The Catcher in the Rye*』가 들려 있었으며 그의 암살 동기는 거짓과 가식에 대한 콜필드의 절규 때문이라고 밝혔다.

『*The Catcher in the Rye*』는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학교에서 또 한번의 퇴학을 당해 집에 돌아오기까지 며칠간 겪는 일들이 독백으로 진행되는 작품이다. 콜필드는 정

- 1) 쓰지 유미(辻有美)(2001) 『번역사 산책』 이희재 옮김, 궁리출판, 머리말
- 2) 샐린저는 1919년 미국 뉴욕시에서 부유한 유태계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벨리포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와 컬럼비아대학교 등에서 창작수업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중 보병으로 소집되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가 하였으나, 군 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입원하기도 했다. 샐린저는 단편 작품들을 주로 『뉴욕 커(The New Yorker)』에 발표했다. 그리고 단 한편의 소설 『호밀밭 파수꾼』(1951)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 3) 국민일보 기사(2001,6,5)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와 호밀밭의 파수꾼], 재인용.

신적으로 파괴되어 가지만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질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또한 『The Catcher in the Rye』는 성에 눈떠 가는 소년의 눈으로 본 세상의 인간 조건에 대한 예민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는 소설이다.

『The Catcher in the Rye』의 번역에 있어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은 주인공인 청소년 홀든 콜필드(Holden Caulfield)가 빈번하게 구사하는 속어와 비어 및 습관적으로 굳어진 홀든 특유의 어휘와 말투,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길게 연결하면서 서술하는 주인공의 내적 고백의 어감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 하는 번역의 정확성과 더불어 어감 전달의 적절성에 있다.⁴⁾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The Catcher in the Rye』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Holden Caulfield) 특유의 어휘나 말투가 작품에 부여하는 의미 및 그 효과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한국어역과 일본어역을 비교·고찰함으로써 한·일번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번역의 다의성 나아가 번역의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고찰 자료 선정

고찰의 기준으로 삼은 원전은 J.D.Salinger의 『The Catcher in the Rye』(KODANSHA English Library, 1991)이다.

『The Catcher in the Rye』의 최초의 한국어역본⁵⁾은 1963년에 나왔으며, 가장 최근에 출간된 민음사 공경희 번역본(2001년)을 포함한 총 판본은 35개이다.⁶⁾ 이덕형의 문예출판사본, 윤용성의 문학사상사본, 김옥동·염경숙의 현암사본은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번역본들이다.

그러나 이들 번역본에도 각각의 문제점들은 있다. 윤용성과 이덕형 역본의 경우,

4) 영미문학연구회번역평가사업단(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주)창비. 『호밀밭 파수꾼』의 분석과 평가. pp.223~242 참조.

5) 평화출판사간행, 유경환·노빈 공역본

6) 영미문학연구회번역평가사업단(2005) 前掲書 p.223 : 확인 판본수: 35, 확인본 역자수: 23인

문단과 문장의 임의적 구분은 문제다. 김옥동·염경숙의 현암사본은 길게 이어지는 구어체 문장을 짧게 끊어 번역하거나 원문과는 다르게 문장을 끊는 경우가 더러 발견되나, 원작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속어와 비어의 적절한 번역에 많은 공을 들인 점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공경희역본도 대체로 무난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단락 구분은 비교적 원문을 충실히 따른 편이고 문장을 나누거나 합치는 변용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심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단어와 구절 등 세목을 세심하게 일일이 담아내기보다 축약해서 옮기거나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 부정확한 번역도 지속적으로 나오며 번역이 까다로운 부분에서는 적지 않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⁷⁾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김옥동·염경숙의 현암사본, 이덕형의 문예출판사본, 공경희의 민음사본 세 가지를 고찰 자료로 선정했다.

한편, 일본어 번역본으로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역의 『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The Catcher in the Rye)』(白水社, 2003)와 노자키 다카시(野崎孝) 역 『ライ麦畑でつかまえて』(白水社, 1964)를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고찰 대상으로 선정할 이유로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The Catcher in the Rye』라는 소설의 존재감을 자기 나름대로 재평가·재검증 하고 싶은 욕망에서 번역에 임했다고 할 만큼 정성을 기울여 번역했으며, 시바다 모토유키(柴田元幸)와의 대담으로 이루어진 『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The Catcher in the Rye)』의 해설서적인 대담집 『번역야화 2 셀린저 전기(翻訳夜話2 サリンジャー戦記)』(文芸春秋, 2003)에서 『The Catcher in the Rye』 번역에 임하는 자세 및 번역에 대한 해설과 번역할 당시 무라카미 하루키가 주목하고 배려했던 점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자키 다카시(野崎孝)역 『ライ麦畑でつかまえて』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역 『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The Catcher in the Rye)』와 자주 비교·거론되어지며 『번역야화 2 셀린저 전기(翻訳夜話2 サリンジャー戦記)』의 제2장 처話2의 주인공 홀든의 어휘와 말투(ホールン語) 부분에서 무라카미 하루키(村

7) 영미문학연구회번역평가사업단(2005) 前掲書 pp.224~225 『호밀밭 파수꾼』의 분석과 평가.

- 집중검토대상인 9종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원작의 작품성을 살렸으며 비교적 완벽한 번역이라고 추천할만한 번역서는 한 종도 없었다.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번역본은 모두 3종이다. 줄거리 파악은 가능하나 정확성과 가독성 양면에서 신뢰하기 힘든 번역본이 3종, 그밖에 문제가 심각하거나 전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조야한 번역서도 3종으로 판정되었다. -

上春樹)역과 노자키 다카시(野崎孝)역의 차이를 알 수 있고 그에 관한 해설도 있으며 또한 노자키역이 가장 권위 있는 번역본으로 애독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고찰 자료로 선정하였다.

2.2 홀든 콜필드(Holden Caulfield)의 어휘·말투의 의미 및 그 효과

이 소설에서 사용되는 홀든 콜필드 어휘의 대부분은 1950년대 무렵의 미국,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뉴욕 근방의 유행어인데, 그런 특수한 형태로 기술된 어휘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할 때는 그것에 대응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세속적 유행어를 어느 정도까지 번역할 것이냐 하는 번역 수위 조절이 실제 번역시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소설 번역의 한 가지 포인트는 작품에 기술된 어휘를 어느 정도까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작가는 몹시 강하다고 할까, 직접적인 어휘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일본어 문장으로써 매끄럽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어휘의 강도를 7할 정도로 약하게 번역할 것이냐, 8할 정도까지 완화시켜 번역할 것이냐 하는 번역의 비율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하고 있다.⁸⁾

그리고 이 소설이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어휘는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똑같은 말을 몇 번씩이고 되풀이해서 사용하면서도 문맥에 따라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요컨대 『The Catcher in the Rye』 번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자주 구사하는 속어와 비어 및 독특한 어휘와 말투이다. 그리고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설인 만큼, 번역의 성공 여부는 주인공의 내적 고백의 뉘앙스를 어느 정도까지 잘 살려 옮길 것인가 하는 어감 전달의 적절성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어감의 의미를 옮기는 작업 외에도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 억양 및 리듬을 살리는 번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8) 「この『キャッチャー』と言う小説の翻訳の一つのポイントは、そこに書かれている言葉をどこまで字義通りに受け取るかと言うことだと思えます。作者はかなりきついというか、直接的な言葉をどんどん使っているわけだけど、それをそのままのレベルで訳していくと、日本語の文章としておさまりがつかなくなる。だから、そのへんの言葉の強度を七割まで落として訳すのか、八割くらいまで落として訳すかとか、そういう割合の問題になってきますね。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翻訳夜話2 サリンジャー戦記』. 文芸春秋 pp.108~109

『*The Catcher in the Rye*』는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거칠 것 없는 언사, 당시로써는 사회적 터부였던 적나라한 욕설 그리고 그의 저항적 태도를 나타내는 독특한 어휘와 말투의 비중이 큰 소설인 만큼, 번역의 성공여부도 그러한 홀든 콜필드의 어휘와 말투의 어감을 어떻게 적절하게 담아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홀든 콜필드의 독특한 어휘와 말투라 할 수 있는 「sad」 「phony」 「kill」 「you」 「and all」을 중심으로 한·일 번역을 비교 고찰하기로 한다.

2.3 홀든 콜필드의 어휘·말투의 한·일 번역 비교

2.3.1 「sad」의 한·일 번역 비교

「sad」의 의미 : 悲しい(슬픈, 애처로운 딱한, 구슬픈), 哀れな(애처로운, 가엾은, 불쌍한, 딱한, 가련한), うんざりするよう(진절머리 날 듯한, 지긋지긋한, 싫증나는), なさけない(한심한, 실망스런, 정나미 떨어지는), 切ない(애절한, 가슴이 옥죄는, 안타까운)

What made it even more depressing, old Spencer had on this very sad, ratty old bathrobe that he was probably born in or something. (Salinger, *The catcher in the Rye*, p14)

[K1] 게다가 나를 더욱 침울하게 한 것은 그가 초라하고 낡은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 옷을 입고 나온 것 같았다.
(이덕형역 『호밀밭의 파수꾼』, p15 이하 이덕형역)

[K2] 그보다 더 맥 빠지게 하는 건 선생이 갓난애였을 때부터 걸쳤을 법한 후줄근하고 낡은 목욕가운을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옥동·염경숙역 『호밀밭의 파수꾼』, p15 이하 김옥동·염경숙역)

[K3] 이 모든 것들이 내 기분을 한층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스펜서 선생은 아주 가련게 보였고, 초라한 목욕 가운을 입고 있어서 한층 더 그렇게 보였다.
(공경희역 『호밀밭의 파수꾼』, p17 이하 공경희역)

[J1] それにも増して僕をめげさせたのは、先生が身にまとっている切なくしょぼくれたバスローブだった。

それに包まれたまま生まれてきたんじゃないかと思えるくらい、古っばい代物だった。(村上春樹訳『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 p15 이하 村上訳)

[J2] このときの先生は、生まれたときにそいつでくんでもらったんじゃないかって気がするくらい古ぼけた、情けないバスローブを着てやがったんだ。(野崎孝訳『ライ麦畑でつかまえて』, p14 이하 野崎訳)

「sad」는 이덕형역, 김옥동·염경숙역에서는 「초라한, 후줄근한」으로 번역되었으나, 공경희역에서는 「가련하게 보였고」라는 원문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부정확한 번역이 되었다.

한편 노자키(野崎) 역에서는 「실망스런, 맥 빠지는(しょぼい)」 등의 경멸감이 느껴지는 역인데 비해, 무라카미 역에서는 「애절한, 가슴 저미는」이 되어 「초라해진, 추레한, 비참한, 풀이 죽은(うらぶれた)」처럼 경멸적이 아닌, 오히려 동정이나 공감이 느껴지는 번역이 되었다.

2.3.2 「phony」의 한·일 번역 비교

「phony」의 의미 : にせ의(위조의, 모조의, 가짜의), いんちきの(부정의, 속임의, 가짜의, 엉터리)의 (명사의 경우: 모조품, 위조품, 사기꾼, 야바위꾼) 라는 뜻으로 작품 안에서는 순수(innocence)의 반대 개념으로 쓰이는 홀든이 자주 쓰는 말투 중의 하나이다.

I. Grand. If there's one word I hate, it's grand. It's so **phony**. (Salinger, p164)

[K1] 멋지다고! 내가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멋지다는 말이다. 그것은 가식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이덕형역, p149)

[K2] ‘멋지다.’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멋지다’라는 말입니다. 위선적으로 들리니까요. (김옥동·염경숙역, p175)

[K3] <멋지다>라니, 내가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멋지다는 말이다. 너무 가식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공경희역, p144)

[J1] ご機嫌ときたね。何がいやとって、こないやな言葉ってないんだよな。ご機嫌なんてさ。まったくインチキくさい言葉じゃないか。(村上訳, p177)

[J2] ステキ、か。どんな言葉がきらいとって僕はステキっていう言葉ぐらいきらいなのはないんだな。インチキなにおいがするよ。(野崎訳, p166)

II. A million reasons why. It was one of the worst schools I ever went to.
It was full of phonies. And mean guys. (Salinger, p257)

[K1] “이유야 많단다. 그 학교는 내가 다닌 중에 제일 똥통 학교야. 병신들이 우글거리는 학교야. 게다가 더러운 자식들이 많아. (이덕형역, p229)

[K2] 물론 이유야 백만 가지가 넘지. 내가 지금까지 다닌 학교 중에서 최악이었어. 엉터리 사이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구. 비열한 녀석들 말이야. (김옥동·염경숙역, p274)

[K3] 이유는 많지. 이번에 다녔던 학교는 정말 최악이었어. 바보 천치들만 우글거리는 곳이었지. 지저분한 녀석들도 너무 많았어. (공경희역, p222)

[J1] そこには百万くらいの理由があるんだ。あれは僕が行った中でもどん底の学校のひとつだった。何しろインチキな連中がうようよしてるんだ。それから根性の悪い連中。(村上訳, p277)

[J2] 理由ならゴマンとあるよ。あそこは僕が行った中でも最低の学校なんだ。インチキ野郎がいっぱいでさ。それから下司な野郎も。(野崎訳, p260)

「phony」의 한국어역은 세 사람 모두 「가식적인, 위선적인, 병신, 엉터리 사이비, 바보천치」의 비슷한 뉘앙스로 번역하였고 일본어역에서도 「インチキくさい, インチキな」와 같이 비슷한 어감의 번역이 되었다.

홀든이 「phony」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누군가를 정색하고 규탄하는 것이 아닌, 기세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내뱉는 듯한 경우도 있다. 문체에 내포되어 있는 목소리의 크기나 속도, 억양 등을 헤아려 번역을 구별했다고 무라카미는 말한다.⁹⁾ 원문의 목소리의 뉘앙스를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것도 번역에서는 빼놓을 수

9)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前掲書 p.109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즉 리듬을 살린 번역이 제대로 된 좋은 번역이라 말할 수 있겠다.

2.3.3 「kill」의 한·일 번역 비교

「kill」의 의미 : It killed me. : やられたね。参ったよ。いやになっちゃうよ。

죽여준다. 죽인다. 질려버린다. 질린다.

It near killed me.: 死ぬかと思ったよ。もう少しで死ぬところだったぜ。

It damn near killed me. : 훌튼이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말이다.

I. The best one in it was “The Secret Goldfish.” It was about this little kid that wouldn't let anybody look at his goldfish because he'd bought it with his own money. **It killed me.** (Salinger, p6)

[K1] 그 단편집에 제일 잘된 것이 「비밀 금붕어」인데, 그것은 자기 돈으로 산 금붕어라고 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어느 꼬마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는 나를 매료시켰다. (이덕형역, p8)

[K2] 이 단편집에서 제일 괜찮은 작품은 「비밀 금붕어」라는 건데요, 제 돈으로 산 금붕어라고 해서 아무한테도 금붕어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어떤 꼬마 놈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죽여준다구요. (김옥동·염경숙역, p6)

[K3] 그 단편집에서 단연 최고는 「비밀 금붕어」였다. 자기가 번 돈으로 금붕어를 샀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한 꼬마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그 소설에 매우 감동했다. (공경희역, p10)

[J1] なかでもいちばんいいのは「秘密の金魚」っていう短編で、誰にも自分の金魚を見せようとしないうちの子どもの話だ。どうして誰にも見せないかっていうとさ、その子が自分のお金で買った金魚だからなんだ。これにはもう参っちゃったね。 (村上訳, p6)

[J2] その中で一番いいのは、「秘密の金魚」っていう奴だ。自分の金魚をどうしても人に見せたがらない子供のことを書いたものなんだ。これには参ったね。 (野崎訳, p6)

II. But if a girl's quite young and all and she does it, it's so pretty **it just about kills you.** (Salinger, p122)

[K1] 그런데 아직 새파란 소녀가 그런 행동을 해오면 나는 흥분하고 만다. (이덕형역, p114)

[K2] 하지만 아주 나이 어린 여자 애가 그런 일을 하면 너무 양증스러워 거의 죽여준 다는 겁니다. (김옥동·염경숙역, p131)

[K3] 하지만 그 애처럼 어린 여자애가 그런 일을 했으니,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공경희역, p110)

[J1] でもすごく若い女の子にそんなことされたら、そのしぐさの可憐さに、君だって ぐっときちゃうはずだよ. (村上訳, p134)

[J2] しかし、まだ若かったりする女の子がさ、そんなふうにすると、とってもきれいで、こっちはもう参っちゃいそうになるぜ. (野崎訳, p126)

「kill」의 한국어역에서는 김옥동·염경숙역만이 「죽여준다구요, 죽여준다는 겁니다」라는 원어와 가장 근접한 어감으로 번역되었으며, 이덕형역의 「매료시키다, 흥분하고 만다」와 공경희역의 「매우 감동했다, 기절할 정도로 놀라다」는 원어의 어감을 살리지 못한 번역이 되고 말았으며, 특히 공경희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kill」의 번역에 있어서도 단어와 구절 등 세목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담아내기보다는 대충 넘어가는 부정확한 번역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똑같은 「It killed me.」라도, 번역은 「本当に参ったよ」라든가 「いやになっちゃうよ」라든가 「笑っちゃうよね」 등의 몇 가지 선택 갈래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 「kill」이라는 단어를 언제나 한 가지 일본어로 재현하는 것은 무리이며 선별해서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무라카미는 부연한다.¹⁰⁾ 「kill」의 번역에서도 한·일 역자들은 십대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속어와 비어의 번역에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김옥동은 그러한 고심의 해결책으로 우리말의 속어나 비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옮기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시중에 유행하던 속어와 비어들

10)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前掲書 p.110

을 수집하기도 하였으며 그 관계문헌을 찾아보기도 하였다고 번역본의 맨 뒤 작품해설에서 밝히고 있다.¹¹⁾ 이러한 예에서도 번역에 임하는 번역자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따라 번역의 정확성이 크게 개선됨을 알 수 있다.

2.3.4 「you」의 한·일 번역 비교

「you」의 의미 : あなた(たち)、君、お兄さん (너, 오빠)

화자인 홀든이 「you」를 향해 말을 걸고 있다. 이 때 「you」를 말을 듣는 존재로 번역하느냐, 혹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느낌은 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홀든이 자주 구사하는 「you」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여동생 피비가 홀든을 부르는 호칭은 「오빠」가 아니라 「あなた, 너」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귀여운 여동생이 아닌, 자신의 일부이며 과거로부터 빠져나온 가설이며 환영이기 때문이다.¹²⁾

If **you** really want to hear about it, the first thing you'll probably want to know is where I was born, and what my lousy childhood was like, (중략), and all that David Copperfield kind of crap, but I don't feel like going into it,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Salinger, p5)

[K1]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마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것은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구차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으며, (중략) 그러니까 데이비드 코퍼필드 식의 시시껄렁한 이야기 말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런 이야기는 입에 담고 싶지 않다. (이덕형역, p7)

[K2] 정말로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 거지 같은 유년시절이 어떠했으며, (중략) 그러니까 온통 시시콜콜하게 내력이나 캐는 데이비드코퍼필드식 얘기들 말이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그런 이야기는 늘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김옥동·염경숙역, p5)

[K3] 정말로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끄찍했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중략) 와 같은 데이비드 코퍼필드 식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난 그런 이야

11) 김옥동·염경숙역(2005년) 『호밀밭의 파수꾼』 J.D. 샐린저. 현암사 pp.362-363

12)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前掲書 pp.48-49

기들을 하고 싶지 않다.

(공경희역, p9)

[J1] こうして話を始めるとなると、君はまず最初に、僕がどこで生まれたとか、どんなみっともない子ども時代を送ったとか、(중략)その手のディビット・カッパフィールド的なしょうもないあれこれを知りたがるかもしれない。でもはっきり言ってね、その手の話をする気になれないんだよ。(村上訳, p5)

[J2] もしも君が、ほんとにこの話を聞きたいんならだな、まず、僕がどこで生まれたとか、チャチな幼年時代はどんなだったのかとか、(중략)そういった《ディビット・カパーフィールド》式のくだらないことから聞きたがるかもしれないけどさ、実をいうと僕は、そんなことはしゃべりたくないんだな。(野崎訳, p5)

위의 예문은 작품의 맨 처음 시작 부분이다. 한국어역에서는 모두 「you」의 번역이 빠져있다. 『호밀밭 파수꾼』에서는 「you」를 어떻게 해독하느냐는 번역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결정에 연관된다. 그런 점에서 번역가가 「you」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번역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¹³⁾

한편, 박물관의 장면에서도 원문의 「your hand」는 문맥적으로 보면 분명 홀든의 어린시절 이야기이므로 「僕の手」로 번역해도 괜찮을 듯하나, 「君の手」로 번역함으로써 홀든의 체험이기도 한 동시에 독자의 체험이기도 한 듯한 효과가 연출되었다고 시바다 모토유키(柴田元幸)는 말한다.¹⁴⁾ 이것에 대해 무라카미는 「you」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경우도 있지만, 빈도로 따지면 세 네 번 중에 한 번 정도라고 말한다. 그 기준으로는 자연스러움이나 정확함이 지켜지고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감각적인 문제였으며, 영어와 일본어가 지닌 성격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다. 『キャッチャー』 작품은 「you」라는 단어를 기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you」의 대상이 홀든이기도 하고 독자이기도 한 교묘한 장치(기법)를 쓰고 있다고 했으며, 원작에서 완벽하게 구사되고 있는 「you」를 번역에서도 멋지게 소화하려고 했다고 말한다.¹⁵⁾ 무라카미는 『キャッチャー』의 「you」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3) 김춘미(2004) 「소설가와 번역2」, 『2004년도 한국일본학회 산하학회합동학술대회 Proceedings』, 한국일본학회, p171

14)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前掲書 p.110

15)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前掲書 pp.113~114

그러므로 『キャッチャー』 중의 「君」의 존재란 여러 가지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 말을 건네 듣는 것 이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소설을 읽고 있으면, 「君」는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 드러들이 교묘하다고 할까 노련합니다.¹⁶⁾

2.3.5 「and all」의 한·일 번역 비교

「and all」의 의미: …やなんか、…など、…とか、…とかなんとか (…와 같다는 등) 홀든 특유의 말투 중 하나가 「and all」을 말끝에 붙이는 것으로 홀든의 말버릇이기도 하다. 원문의 음(voice)을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것도 번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리듬을 살리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 「goddam」이나 「and all」은 대부분의 경우 리듬을 살리기 위한 어법이지만, 번역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Oh...well, about Life being a game **and all**. And how you should play it according to the rules. (Salinger, p16)

[K1] “저, 인생이란 게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덕형역, p16)

[K2] “오, … 글썄, 말하자면 인생이란 경기와 같다는 등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김옥동·염경숙역, p17)

[K3] 저 … 그러니까, 인생은 운동경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규칙에 따라서 시험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공경희역, p18)

[J1] あの……えーと、人生とはゲームだとか、そういう内容のことでした。君はルールに従ってプレイしなくてはならないんだとか。 (村上訳, p17)

16) 「だから『キャッチャー』の中での「君」という存在は、いろんな役目を多角的に果た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語りかけられるという以上に、もっと積極的にゲームに参加させられている部分もあります。たとえば僕がこの小説を読んでいると、その「君」は僕であったり、僕でなかったりする。その出し入れが巧妙というか、うまいですね。」『翻訳夜話2 サリンジャー戦記』 p.113

[J2] そりゃ……そうですね、人生は競技だ、とかなんとか。だから、ルールに従って
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かですね。(野崎訳、p16)

한국어역에서는 김옥동·염경숙역만이 원어의 어감을 제대로 살리는 번역이 되었고, 이덕형역에서는 「and all」의 번역이 아예 생략되었으며 공경희역도 「and all」의 정확한 어감을 전달하지 못했다.

홀든은 사사로운 표현을 자신의 말투의 서명(シグネチャー)처럼 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어미에 「and all」 등을 붙이는 경우가 그것이다. “독특한 개인적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번역문에서도 원문과 대응하는 「홀든의 말투(ホールデン語)」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진부함이나 참신함보다는 풍화작용에서 비껴간 곳에 있는 말을 짜 맞추어 시대성을 뛰어넘는 말투 특유의 언어를 만들려고 의도했다”고 무라카미는 말했다.¹⁷⁾

3. 결론

지금까지 소설 『*The Catcher in the Rye*』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Holden Caulfield)의 어휘·말투를 중심으로 한국어역과 일본어역을 비교·고찰함으로써 한·일본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나아가 번역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내용이나 주제 전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내용이나 주제를 전달하는 방법이나 형식에 무게를 두고 번역을 해야 하는 작품이다. 한국어역자 3인과 일본어역자 2인의 번역을 비교해 볼 때, 번역가의 해석과 애정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났으며 그 만큼 번역 표현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역자 해설에서 김옥동이 밝혔듯이 “홀든의 고백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¹⁸⁾ 역자는 청소년인 홀든이 구사하는 속어와 비어 및 언어습관을 살리려고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무라카미 하루키는 『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The Catcher in the Rye*)』의 해설서적인 시바다 모토유키(柴田元幸)와의 대담집 『번역야화 2 셀린저 전기(翻訳夜話 2 サリンジャー

17)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前掲書 pp.131~132

18) 김옥동·염경숙역(2005년) 『호밀밭의 파수꾼』 J.D. 셀린저. 현암사. p.363

戰記)』에서 『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의 번역을 위한 준비, 마음가짐과 생각, 번역 과정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작품에 얼마나 많은 애정과 의욕을 갖고 공을 들여 번역했는지도 가늠할 수 있었다.

번역에 왕도는 없다. 누구나가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제대로 된 완벽한 번역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적어도 번역에 임하는 번역자의 노력 및 애정 여하에 따라 번역의 질 즉, 번역의 정확성 및 어감전달의 적절성이 개선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끝으로 번역의 중요한 요소로 ‘개인적인 편견에 가득 찬 사랑’을 지적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훌륭한 번역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어학력이나, 이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편견에 가득 찬 사랑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해결된다고 나는(작가로서 번역가로서) 생각한다. 편견에 가득 찬 사랑이야말로 내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편견으로 가득 채워 사랑하는 것 중의 하나다. 인간 삶의 모든 국면에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괴리를 유효하게 메워야 할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¹⁹⁾

참고문헌

- 김옥동·염경숙역(2005년) 『호밀밭의 파수꾼』 J.D. 샐린저. 현암사
 김준미(2004) 「소설가와 번역2」, 『2004년도 한국일본학회 산하학회 합동학술대회 Proceedings』, 한국일본학회, 2004,11,6(건국대학교)
 공경희역(2001)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민음사
 이덕형역(1998) 『호밀밭의 파수꾼』 J.D. 샐린저. 문예출판사

19)優れた翻訳にもっとも必要とされるのはおそらく語学力だが、それに劣らず必要なものは個人的な偏見に満ちた愛である。極端に言ってしまうと、それさえあればあとはなんとかなると僕は(作家として翻訳者として)思う。偏見に満ちた愛こそは、僕がこの不確かな世界にあって、もっとも偏見に満ちて愛するものの一つである。人間の生のあらゆるアスペクトに否応なく生じる乖離を有効に埋めるべきものは、それしかないのではないか?

村上春樹(2002年 8月) 『カチの声』 「翻訳を語る-翻訳すること、翻訳されること-」 国際交流基金ソウル文化センター

- 영미문학연구회번역평가사업단(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주)창비
- 野崎孝訳(1964) J.D.サリンジャー 『ライ麦畑でつかまえて』. 白水社
- 村上春樹訳 (2003) J.D.サリンジャー 『キャッチャー・イン・ザ・ライ』. 白水社
- 村上春樹・柴田元幸(2003) 『翻訳夜話2 サリンジャー戦記』. 文芸春秋
- 村上春樹(2002年 8月) 『カチの声』 「翻訳を語る - 翻訳すること、翻訳されること-」
国際交流基金 ソウル文化センター
- J.D.Salinger (2003) 『The Catcher in the Rye』 KODANSHA English Library